

본 브리핑은 페로타임즈 편집국에서 매주 발간하는 Report입니다.
원료, 가격, 해외동향 등을 유료회원에게만 제공하여 드립니다.

주간 시황 Report

2021. 03. 21. 제 42 호



페로타임즈
FERRORTIMES

(요약)

1. 3월 첫주 원료 및 철강 가격 현황

- 철광석 200, 고철 500, 열연 800...억제되지 않는 낙관론
- 철광석 하락국면 진입...수요둔화 vs 공급개선
- 철스크랩(고철) 연중 고가 유지 변동주기 '축소'
- 철강재 중국 철강재고 감소와 생산억제 '과잉 완화'

2. 철광석

- 하락 국면 진입...中 수입 재고 1억3천만톤 돌파, 친환경 정책 수요 감소
- 中 정부 당산시 감산명령...수입 철광석 재고 전년치 상회

3. 철스크랩

- 한국 하락세 조기종료 가능...중국 동남아 수요 기반 역할
- 터키 수입가격 CFR 410달러, 3월초 대비 30달러 하락

4. 철강재

- 한국 수입감소 '타이트'한 수급 철강재 가격 '지지'
 - . 본계강철 한국향 오피 동결 열연 FOB 765달러
 - . 중국산 철근가 '국산 추월'...유통업계 2차 상승 '사재기' 꿈틀
- 중국 철강 내수 가격 양회 이후 강세 기조
상해 내수가 19일 기준 열연 5070위안, 철근 4720위안 각각 20위안 상승

시황분석리포트

2021년 3월 3주차 글로벌 원료 및 철강 가격 현황

[FERRO INDEX] 철강재 및 원료 가격 종합

단위 : 달러/톤, CFR

구분	2-3주	3-2주	3-3주	변동폭		
				일주일	1개월	
철광석 원료탄	글로벌 Fe 62%	173	167	164	-3	-9
	감점결탄	217	213	213	-0	-5
철스크랩	미국산 터키 HMS 1&2	420	435	410	-25	-10
	미국산 2# HMS 1&2	440	460	434	-26	-6
	대만 컨테이너	400	427	400	-27	0
	일본산 일본 H2 (백엔 FOB)	420	435	410	-25	-10
	*H2 한국도착(천원)	460	480	450	-30	-10
	중국 내수 45개 도시 평균 (위안)	2,769	2,989	2,971	-18	202
	(달러)	428	459	456	-3	28
중국 철강재	중국 열연 본계강철 한국향(FOB)	-	765	765	-	-
	중국 오퍼(FOB)	657	721	732	11	75
	중국 내수 가격(위안)	4,780	5,000	5,070	70	290
	중국 철근 중국 한국향(CFR)	-	705	705	-	-
	중국 오퍼(FOB)	650	680	678	-2	28
	중국 내수 가격(위안)	4,480	4,700	4,720	20	240
중국 냉연도금 냉연코일(FOB)	-	840	840	0	-	
	아연도금코일(FOB)	-	880	880	0	-
반제품	빌릿 흑해 수출(FOB)	550	580	570	-10	20
	슬래브 브라질 수출(FOB)	770	790	795	5	25
한국 철강재	열연(포스코산)	90	92	92	-	2
	(중국산)	88	91	91	-	3
	철근(국산)	75	75	76	1	1
	(중국산)	74	75	78	3	4
	유통 형강(국산)	89	92	90	-2	1
	(포스코베트남)	87	87	88	1	1
	앵글 잔넬(국산)	84	84	84	-	-
	앵글(수입산)	75	75	75	-	-
잔넬(수입산)	77	77	77	-	-	

- 철광석 원료탄 : 스폿계약 3월 15~19일 평균
- 한국 품목별 유통가격 : 페로타임즈 자체조사, 각 품목 베이스 기준
- 철스크랩 : 최근 성약 및 오퍼 가격/페로타임즈 추정 *한국 도착 가격은 운임/환율 등에 영향
중국 내수 : 전국 평균 3월 19일 기준
- 중국 오퍼 : 무역업계 및 외신, 페로타임즈 추정/중국 내수 가격 : 상해 3월 19일 기준
- 한국향 : 열연 냉연 도금재(본계강철 매주 1회), 철근(사강강철 월초 1회)
- 반제품 : 빌릿(플래츠 기준), 슬래브(AMM 기준)

※ 최종 업데이트 3월 20일

*. 제공 : (주)페로타임즈

2분기 철강 업황 및 기업실적 호조 중국 재고, 철강 감소 vs 철광석 증가

철강 업황은 2분기까지 호조를 보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기업 실적은 고로사를 중심으로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철광석 가격은 하향 안정세로 접어든 반면 철강 가격은 강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전 세계 주요 지역의 철강사들은 6월 이전 신규 주문을 받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수급 상황은 계속 타이트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고로사의 경우 원가부담 해소와 추가적인 철강 가격 인상에 따라 실적 개선이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중국 철강 시장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철강 유통 재고는 19일 기준 2673만 톤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주보다 79만 톤 감소했고, 전년 동기(3114만 톤, 3/20)와 비교하면 441만 톤 줄어든 수치입니다. 중국의 올해 철강 수요가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격을 강세로 뒷받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정부가 환경오염 개선을 위해 생산을 억제하고 있다는 점은 공급과잉 완화에 긍정적입니다. 정부는 당산시 23개 제철소에 대해 20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30~50%의 감산을 실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주 철광석 가격 하락이 나타난 원인이었습니다.

한국 시장도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수출 감소 예상 및 가격 강세 ▲국내의 타이트한 수급 상황 ▲철강사들의 4월 가격 인상 기조 지속 등이 배경으로 꼽힙니다.

철강 및 원료 가격은 상승과 하락의 변동 주기가 빨라지는 한편 올해 연간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2분기 중 철강 가격은 하락으로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요업체들의 가격 부담과 구매의 둔화 ▲글로벌 철강 기업들의 증산과 가동 정상화 ▲철광석 철스크랩 가격 조정 가능성 등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여름철 비수기 영향이 나타나는 5~6월 조정 가능성을 염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FERRO POLL] 페로타임즈가 3월1일부터 진행 중인 <체감경기는 어떤가요?>를 주제의 설문조사(FERRO POLL) 결과에 따르면 21일 기준, 77.6%가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좋았고,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는 의견이 37.3%로 가장 많았고, <2020년 이전으로 회복된 정도다>가 23.9%로 뒤를 이었습니다. <현재 부진하지만 계속 좋아질 것이다>는 16.4%였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의견으로는 <잠시 회복됐지만 다시 침체될 것이다>가 14.9%, 2020년보다 더 부진하다>는 7.5%였습니다.

진행중인 설문조사



[분석전망] 철광석 200 고철 500 열연 800...억제되지 않는 '낙관론'

<http://www.ferr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31>

WSD 2021년 철강 및 원료 가격 전망 (2020. 3. 11)										
		단위 : 달러/톤								
품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2분기	3분기	4분기	
열연강판	World export market (FOB)	600	690	750	730	750	820	780	650	600
	China export (FOB)	590	680	690	662	720	780	740	610	580
반제품	빌릿 (FOB Black Sea)	490	545	565	568	585	650	615	540	520
	슬래브 (FOB Black Sea)	520	600	655	655	688	720	670	540	520
철광석 원료탄	Chinese iron ore (Hebei province)	138	147	170	185	190	200	185	150	135
	Coking coal (Shanxi province)	145	162	183	184	183	185	180	140	140
철스크랩	80/20 HMS (to Turkey)	355	444	415	421	450	500	485	400	400

◆ 철광석

하락국면 진입...수요둔화 vs 공급개선 중정부 당산시 감산명령...수입 철광석 재고 전년치 상회

중국 정부는 올해 말까지 당산시 23개 제철소에 대해 감산 명령을 내렸다. 생산량은 30~50%까지 감축해야 한다. 환경오염 개선이 목적인 만큼 환경설비를 완비한 제철소들의 생산에는 영향이 미미할 전망이다. 정부의 생산억제 의지가 시장에 드러나면서 19일 중국의 철광석(Fe 62%) 수입 가격은 CFR 톤당 160.0달러로 하루새 3.4%(5.6달러) 급락했다. 대련선물시장에서 5월 인도분 거래 가격은 톤당 1042위안으로 37.5위안 하락했다. 수입 철광석 재고는 1억3000만 톤을 돌파했다. 45개 항구의 수입 재고는 1억3020만 톤으로 집계됐다. 작년 12월 1억2420만 톤에서 600만 톤이나 늘었다. 작년 3월 말 재고는 1억1700만 톤이었다. 철광석 가격은 하향국면에 들어섰다. 중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은 철광석 수요 감소로 영향을 줄 전망이다. 글로벌 공급 계속 늘어나고 있다.

▷ 철광석 19일 160.0달러, 2월 말 대비 9.2% 하락

※ 글로벌 공급량 증가 전망(기사참고)

단위 : 달러/톤	중국 수입		숯물구매원가
	철광석(Fe 62%)	원료탄(강점결탄)	
2021-03-04	177.9	214.5	458.5
2021-03-05	174.2	214.5	452.6
2021-03-08	173.5	214.0	450.9
2021-03-09	163.4	214.3	434.9
2021-03-10	163.4	213.0	433.9
2021-03-11	170.8	212.4	445.3
2021-03-12	165.6	212.4	437.0
2021-03-15	163.6	212.9	434.2
2021-03-16	165.5	212.9	437.1
2021-03-17	165.6	212.9	437.3
2021-03-18	165.7	212.9	437.5
2021-03-19	160.0	212.9	428.4
전주 대비	-3.4%	0.2%	-2.0%
	-5.6	0.4	-8.7
2월 말 대비	-9.2%	-2.6%	-6.7%
	-16.3	-5.7	-30.8
1월말 대비	1.4%	-2.2%	-0.1%
	2.2	-4.9	-0.3
12월말 대비	0.6%	6.4%	2.8%
	1.0	12.8	11.9

*. 제공 : (주)페로타임즈

▷ 철광석 재고 1억3천만 톤 돌파



*. 제공 : (주)페로타임즈

[핫토픽] 발레 5.6억톤 철광석 PJ 착수...올해 글로벌 생산 1억5천만톤 ↑

<http://www.ferr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89>

페로타임즈 3월22일자

글로벌 철광석 생산량은 올해 1억50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브라질 발레(Vale)는 올해 4억 톤 생산체제를 회복하는 한편 5억6000만 톤을 취급할 수 있는 철광석 전용 항구 건설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글로벌 철강 전문 매체인 Fastmarkets에 따르면 2020년 철광석 생산량은 22억 톤으로 기록했다. 올해는 23억5000만 톤으로 예측, 전년 대비 6.8%(1억5000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철광석 가격은 그간 중국의 수요증가와 브라질 발레(vale)의 공급계약으로 10년 만의 최고치인 175달러 내외의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글로벌 생산량은 발레를 비롯해 호주, 인도 등에서 증가할 전망이다.

발레는 올해 4억 톤 생산체제로 회복할 전망이다. 2월 출하량은 북부지역 폭우 등에 따라 8% 감소했다. 또 1월부터 진행된 폰타다마데이라(Ponta da Madeira) 부두 수리로 인해 출하에 지장을 받았다. 철광석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 원인 중의 하나로, 최근에는 160달러대로 조정을 받았다.

앞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발레는 올해 4억 톤 생산체제 회복과 함께 철광석 전용 항구 건설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발레는 마란하오(Maranhão)의 알칸타라 항구 터미널(The Alcântara Port Terminal, TPA)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환경 및 사회적 영향 연구는 6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7억7200만 달러(한화 8724억 원)가 투입된다. 수심은 405m, 드래프트는 최소 25m로, 8선석까지 설치할 수 있고, 최대 45만 톤 규모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세계 최대 광산인 발레 카라자스(Carajás)와 폰타다마데이라를 연결하는 철도(EFC) 공사가 포함된다.

◆ 철스크랩(고철)

연중 고가(高價) 유지 변동주기 축소 한국 하락세 조기종료 가능...중국 동남아 수요 기반

국내 철스크랩 가격은 3월 하락국면에서 조기에 바닥을 다질 가능성이 있다. 전기로 제강사들은 지난주까지 2주 이상 가격을 인하했다. 현재까지 발표된 인하는 24일까지다. 그간 인하폭은 2~3만 원이다. 경량A 기준 제강사들의 구매 가격을 평균 40만 원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 유지된다.

미국, 일본 등의 공급은 타이트한 데다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은 앞으로 5월 필요한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3월 수입량은 평소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어서 국내 구매에 의존도는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4월 추가 인하를 실시하기엔 부담이 따를 것이란 진단이 나오는 이유다.

해외 가격은 터키 대만 등에서 지난주까지 하락세가 이어졌다. 하지만 일본 오퍼는 H2 기준 FOB 4만1천 엔에서 4만3천엔까지 고가로 나오고 있다.

중국의 수입 가격은 최근 한국의 오퍼 가격을 기준으로 P&S(중량) 등급이 CFR 495달러 이상에 나온다. 한국 고철 기업이 손에 든 '중국 수출카드'는 제강사 가격 조정에 대한 협상력으로 작용한다.

1. 미국

- 터키의 HMS No.1&2(8:2) 수입가격 CFR 410달러. 3월초 대비 30달러 하락
- 서부지역 아시아향 오퍼 가격 420~430달러 추정
- ※ 현대제철-심스 431달러(4만5천 톤), 동국제강-슈니처 432달러(3만 톤) 계약, 5월적

- 터키 철근 수출 가격 FOB 620달러

- ※ 터키 철근-고철 스프레드(격차) 195달러. 고철 구매 여력 충분
- 대만 컨테이너 수입 HMS No.1&2 400달러 * CSC 2분기 철강價 인상 '고철 바닥' 근접

2. 일본

- H2 오퍼 가격 FOB 4만1000엔. 최근 4만3000엔까지 고가 오퍼 등장
- 베트남향 CFR 430달러에서 최고 450달러까지

※ 일본과 미국은 공통적으로

선임 급등에 따른 선박 확보 어려움으로 수출 속도가 느려지고 있음.

3. 한국 : **경량 40만 원 이상 유지**

※ 제강사별 가격 취합 (단위 : 천 원/톤)

A 등급 기준	동국제강(포항)	대한제강	한국철강	세아베스틸
---------	----------	------	------	-------

생철	470	435	435	473
중량	450	435	435	463
경량	430	430	415	436
선반설	360(C등급)	380	400	

*. 제공 : (주)페로타임즈

[해설] 고철 국내외 격차는 '옛말'... '수출카드' 제강사 인하 견제

<http://www.ferr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63>

페로타임즈 3월19일자

제강사 구매價 생철 45 중량 44 경량 42 '高수준'
하락국면서 강도 높은 인하 없어 '재고확보' 우선
해외 격차 축소 불구 미국 일본 수출 원활치 않아
중국향 高價 수출 지속 동남아 수요 강세 등 인하 제동

전기로 제강사들은 가격 인하에 신중한 행보다. 통상 하락국면에서 실시했던 강도 높은 인하는 나타나지 않고, 재고확보에 우선권을 두는 양상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주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세아베스틸 등은 업체에 따라 20일을 전후로 2차 인하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인하폭은 지난주를 포함 2만 원가량이다.

보통 글로벌 하락세가 시작된 이후 2,3일에 한 번 꼴로 인하를 단행한 것과 비교하면 인하에 소극적이다.

다음주 2차 인하 이후 제강사들의 A등급 기준 평균 구매 가격은 생철 약 45만 원, 중량 44만 원, 경량 42만 원이다. 경량의 경우 제강사에 따라 편차는 비교적 크게 나타나지만, 최하 40만 원 이상 43만 원에 이른다.

일본산과의 가격 격차도 크게 줄었다. 최근 동국제강의 계약 가격을 기준으로 H2는 FOB 4만1000엔, 한국 도착도로 하면 44~45만 원으로 추산된다. 불과 1개월 전 8만 원에서 10만 원 격차에서 5만 원 이내로 축소됐다.

이전과 비교하면 국내 고철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는 셈이다.

글로벌 지표인 터키의 수입 가격은 미국산 HMS No.1&2(8:2) 기준 CFR 톤당 420달러대에 있다. 아시아향은 약 430달러로, 원화로는 48만 원을 조금 웃돈다. 이 역시 국내와 큰 차이가 없다.

업계에서는 제강사들의 수입량 감소, 타이트한 국내 수급 등의 배경은 제강사들의 인하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평가다. 우선 제강사들의 고철 수입량은 예년에 비해 최소 30% 이상 줄어든 상태다. 일본 고철 수출은 상대적으로 고가(高價) 지역인 동남아,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 선임 급등에 따른 선박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미국 및 일본의 수출 속도가 느려졌다는 점도 제한요인이다.

가격보다 수급이 우선되는 시장이 된 셈이다.

국내의 경우도 대한제강 등 영남지역 제강사들의 재고는 타이트하다. 평소 필요한 재고를 밀도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향 수출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제강사 인하에 대한 고철업계의 견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 재반등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는 점도 업계서 인지하는 바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내내 국내외 고철 가격은 높은 수준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히 중국의 등장으로 일본산 수입이 쉽지 않고, 동남아 구매력이 높아지면서 국내 제강사들은 국내 조달에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 철강재

중국의 철강재고 감소와 생산억제 '과잉 완화' 한국 수입감소 '타이트'한 수급 철강價 지지

철강 시장은 견고하다. 글로벌 철강사 대부분은 6월 이전 신규 주문을 받기 어려운 상태다. 바오산강철, 일본제철 등 주요 고로사들이 4월까지 인상을 발표했고,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사들도 이와 동행할 전망이다.

중국의 열연 오퍼 가격은 FOB 톤당 평균 720달러 이상으로 견고하다. 철근 오퍼 가격은 다소 약세이나 680달러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양회(兩會) 이후 내수 가격은 안정 추세로, 강세쪽으로 무게가 실린다. 상해 내수 가격은 19일 기준 열연 5070위안, 철근은 4720위안으로 70위안, 20위안씩 상승했다. 이를 배경으로 오퍼 가격은 지난 일주일 새 10달러 이상 상승했다. 1개월 상승폭은 75달러에 달했다.

한국 시장 수급은 타이트하다. 열연과 철근 등 수입도 감소했고, 고가(高價) 오퍼에 따라 계약도 소강상태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철근은 특히 중국산 유통 가격이 78만 원으로 일주일 새 3만 원 상승하면서 국산을 추월했다. 국산은 76만 원으로 1만 원 올랐고, 추가 상승이 대세로 인식되고 있다. 형강의 경우 국산은 2만 원 하락한 반면 포스코베트남산은 1만 원 상승했다. 앞으로 강세장이 전개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 중국 철강 내수 가격 양회 이후 강세기조

중국 상해 지역의 주요 품목별 가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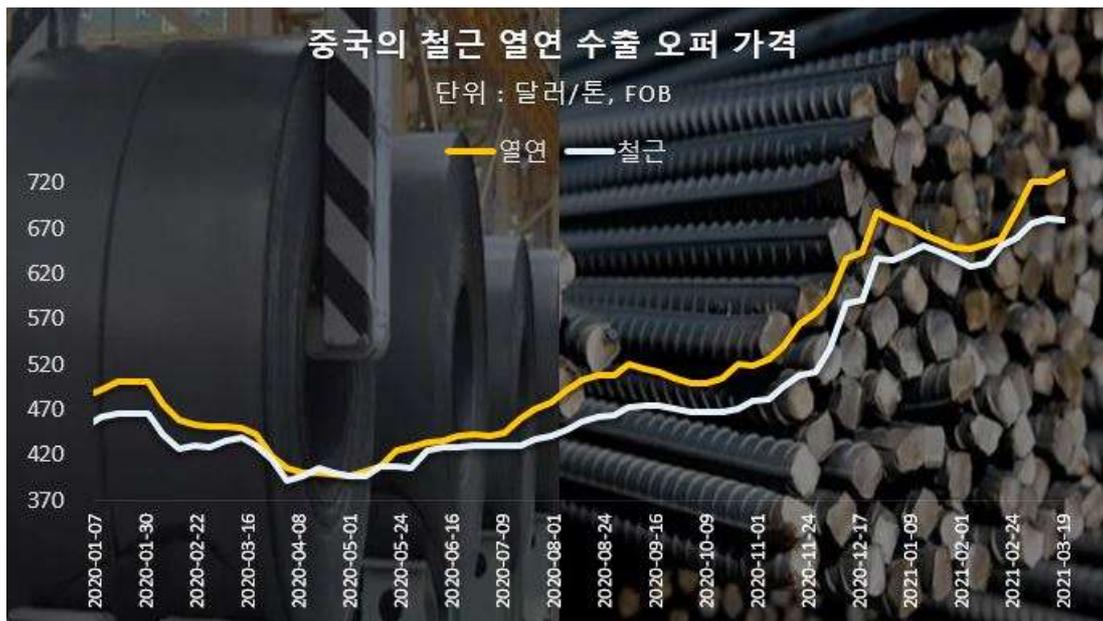
단위 : 위안	철근	열연	냉연	도금재	선재	후판
2021-01-29	4,300	4,560	5,370	5,850	4,400	4,520
2021-02-26	4,630	4,940	5,680	5,940	4,760	4,920
2021-03-12	4,700	5,000	5,690	5,930	4,850	4,980
2021-03-19	4,720	5,070	5,670	5,880	4,860	5,020
(달러 환산)	725달러	778달러	870달러	903달러	746달러	770달러
3월12일 대비	▲20	▲70	▼20	▼50	▲10	▲40
2월 말 대비	▲90	▲130	▼10	▼60	▲100	▲100
1월 말 대비	▲420	▲510	▲300	▲30	▲460	▲500

*. 제공 : (주)페로타임즈

▷ 한국 철강 유통 강세...4월 추가 상승 가능성 ↑

단위 : 만 원	열연		철근		형강			앵글 및 채널(잔넬)			
	포스코 대응재	중국산 (SS400)	국산	중국산	국산	포스코 베트남	바레인 말레이시아	국산 채널	국산 앵글	수입산 앵글	수입산 채널
2020-12-28	80	79	68	70	80	82	80	73	73	68	70
2021-01-04	85	84	72	72	83	82	80	75	75	70	72
2021-01-11	88	87	73	74	83	82	80	75	75	75	77
2021-01-18	88	87	74	75	89	86	85	84	84	75	77
2021-01-25	90	89	74	76	89	86	85	84	84	75	77
2021-02-01	92	91	75	76	89	87	86	84	84	75	77
2021-02-08	90	86	75	75	89	87	86	84	84	75	77
2021-02-15	90	88	75	75	89	87	86	84	84	75	77
2021-02-22	90	88	75	75	89	87	86	84	84	75	77
2021-03-01	92	90	75	75	89	87	86	84	84	75	77
2021-03-08	92	90	76	76	92	87	86	84	84	73	75
2021-03-15	92	90	76	78	90	88	87	84	84	73	75

▷ 본계강철 한국향 오퍼 동결 : 열연 FOB 765달러/냉연 840달러/GI 880달러
 현지 오퍼 열연 FOB 720달러, 철근 680달러



*. 제공 : (주)페로타임즈

[핫이슈] 중국산 철근價 '국산 추월'...유통街 2차 상승 '사재기' 꿈틀

<http://www.ferr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96>

페로타임즈 3월16자

중국산 부족심화 77~78만 원 국산 웃돌아
국산 소폭 상승...추가 상승 예견에 사재기
高價 오피 4월 물량 확보못해 '부족' 지속

철근 유통 거래 가격은 연초 70만 원으로 1차 상승을 기록한 데 이어 2차 상승 기류가 흐른다. 목표 지점은 80만 원이다. 중국산은 공급 부족을 배경으로 급등하면서 국산까지 견인하는 모양새다. 시장에서는 추가 상승을 예견하고 사재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유통 업계에 따르면 이번주 국산 철근 가격은 톤당 76만 원에서 76만5000원으로 전주보다 5000원가량 상승했다. 중국산은 톤당 77~78만 원으로 상승폭이 최고 2만 원에 이르면서 국산을 추월했다.

시장에서는 추가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대리점들은 추가적인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고, 앞으로 79만 원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재기도 꿈틀대고 있다. 공급이 부족한 13.0mm 재고는 78만 원까지 호가가 제시되고 있다. 중국산 공급 부족은 국산 수요 및 가격을 견인하고 있다.

실제 인천항 재고는 바닥수준에서 이번주 또 다시 감소했다. 업계에 따르면 인천항 재고는 6만5500톤(이호 2만6000톤, JJ 2만4000톤, 인천 1만5500톤)으로 파악된다. 전주보다 8000톤 감소했다.

특히 국내서 중국산 계약이 상태에 있다는 점도 공급 부족감을 더하고 있다. 오피 가격은 국내 시세를 웃돌고 있어 부담이 높아진 탓이다. 사강강철의 3월 한국향 오피 가격은 10.0mm 기준 CFR 톤당 705달러, 최초 695달러에서 10달러를 올려냈다. 단순한 달러로만 환산해도 80만 원을 웃돈다.

업계 관계자는 “자금력 있는 업체들은 웃돌을 주고라도 사재기를 하는 상황”이라며 “4월 이후의 재고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인 만큼 부족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